

원희룡 장관, “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철저히” - LH 168개 단지 6월 말까지 설치, 침수 취약 공동주택 사전점검 당부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(수) 오후 작년 6월과 8월에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피해 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고,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훈련을 참관하였다.
 - 오늘 방문한 단지는 879대(지상 207대, 지하 672대)의 주차시설이 설치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으로서 작년 침수피해 이후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고, 지하주차장, 아파트 정문 및 울타리에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하였다.
-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천 인근(1km 이내), 최근 5년간 침수 발생, 지자체 지정 침수위험지구 및 기타 자연재해로 침수가 예상되는 168개 단지에 대해 우기 전까지 지하주차장 내로 우수 유입이 가능한 모든 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올해 여름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, 현재 공동주택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최우선을 둘 필요가 있다”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우선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168개 단지에 대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, 그 외 침수가 우려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물막이판을 설치”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공동주택단지별로 우기에 대응하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”고 하면서,
 - “비상연락망, 수방자재 및 대피로 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공동주택 재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전점검하도록 하고, 침수피해 우려 단지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- 한편, 원 장관은 “행정안전부와 입주자용 ‘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’과 관리자용 ‘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’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니 우기 전까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”고 주택관리사협회에 당부하면서,
- “오늘 현장 훈련을 시작으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침수 취약지역 단지에 대해 지하공간 접근금지 안내,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추진하여 실제 호우 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2023. 6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